



Asian Productivity Organization “The APO in the News”

Name of publication: 디지털타임스 (25 May 2015, ROK)

Page: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5052602100351781001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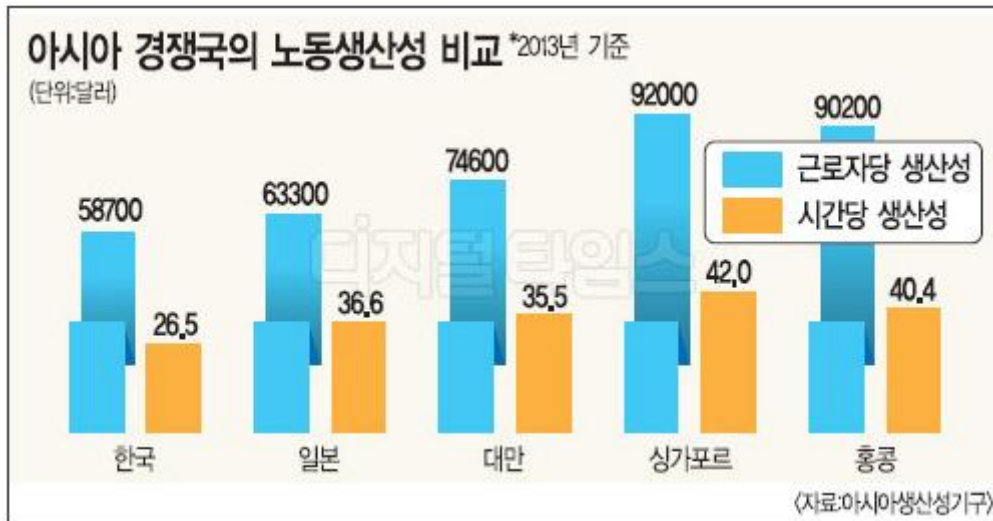
아시아별 임금수준 놓고보니, 한국은 어느수준?

노동생산성 ‘최하위’임금 수준은 ‘최고’… 제조업 경쟁력 상실 우려

박정일 기자 comja77@dt.co.kr | 입력: 2015-05-25 19:01
[2015년 05월 26일자 3면 기사]

폰트 + - [email] [social icons]

[단독] 메르스 예방법, 손만 씻지 말고 스마트폰도 살균해야



국내 경제를 이끄는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저하 문제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여기에 엔저와 원고 등으로 인해 환율 리스크까지 커지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갈수록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주요 대기업들은 수익성 확보를 위해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노동 유연성을 보장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산업계에서는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사업](#) 전환이 이뤄져야 다시 재도약의 기반을 다질 수 있다는 것이 재계의 목소리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은 노동생산성 하락에 따른 원가 부담에 수년간 지속 중인 원고 현상까지 겹쳐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국내 제조업 수출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의 1분기 영업이익률을 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3%포인트 떨어진 12.69%를 기록했고, 현대차와 기아차의 영업이익률도 작년보다 1% 포인트 이상 하락한 7.58%와 6.17%에 머물렀다.

원화보다 외화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환전 과정에서 수익성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2012년 6월 100엔당 1514.86원을 기록했던 엔화 가치는 이날 현재 901.56원으로 40%가량 떨어졌다. 원·달러 환율 역시 2015년 5월 1달러당 1186원에 이르렀다가 1089원으로 약 8% 떨어진 상황이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하반기 1000원 이하로 내려갈 뻔했지만 그나마 회복한 상황이다.

아시아 주요 경쟁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의 노동생산성 역시 수익성 악화에 일조하고 있다. 아시아생산성기구(APO)가 발표한 한국의 시간당 생산성은 26.5달러 수준으로 [일본](#)(36.6달러), 싱가포르(42.0달러), 홍콩(40.4달러) 등 경쟁국보다 크게 낮다. 근로자당 노동생산성(연간)도 한국은 5만8700달러에 머문 반면 싱가포르는 9만2000달러에 이른다. 노동생산력만으로 단순 비교하면 한국보다 일본에 [공장](#)을 짓는 것이 낫다는 뜻이다.

노동생산성은 투입한 일정한 노동력(통상 노동시간)과 그 노동에 의해 얻어진 생산량의 비율을 의미한다.

반면 임금수준은 아시아 최고 수준이다. 대한[상의](#)가 분석한 아시아 경쟁국의 임금수준은 한국이 월평균 2903달러로 일본(2522달러), 싱가포르(2616달러) 보다 높았다. 이 같은 고임금 구조로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속속 해외 생산 비중을 늘리고 있다. 최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방한 당시 현대차 등 주요 기업들이 인도 [투자](#)를 적극적으로 논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노동 관련 규제 [강화](#)가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려 결국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정년은 60세로 늘어났지만, 후속 조치인 임금 재조정 등에 대한 법안은 정해지지 않았고, 최근에는 현행 68시간인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도 논의 중이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생산성 개선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할 수 있다"며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법 제도를 정하고 그 이상의 수준은 각 기업 노사가 자율적으로 형성할 여지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산업 측면에서는 고부가가치 중심의 사업 재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상윤 포스코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우리 기업이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 전반의 [집중](#)과 자원 투입이 필요하다"며 "산학연 협력 등 다자간 협업을 유인하는 산업 생태계 혁신과 아이디어에 대한 보상과 거래를 활성화하는 [문화](#) 등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ia77@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